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진승



최근 대통령은 사회통합의 근본은 소통이며 통합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이 소관 업무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청와대 고위층도 정책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관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총리지명자는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현재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는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대로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약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외에도 부인의 해외기부 매립지 건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한 한탄강댐 건설, 4대강 대책, 세종시 이전, 용산 참사 등등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정부정책 투명성 강조돼야

많은 사례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정책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예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남북한 관계, 국민연금 문제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장기정책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천문학적 금액에 달할 것이며 상호 신뢰성의 상실과 불복으로 인한 분열이 없는 손실은 국가의 장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국내의

600개 대개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사회적 갈등이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다. 따라서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

태야 한다. 정책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투명한 정책수립 과정은 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에 관한 논의에 초대되어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은 정책의 필요성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기회를 갖게 되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인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투명성은 정책의 성과가 일부 특정 이해당사자, 또는 지역에 편중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정책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만약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정부, 또는 일부 힘 있는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정책이 수립될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퇴보 되고, 사회적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

〈APEC 기후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백창희



최근 고령화와 당뇨병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어깨 통증 환자가 늘고 있다. 사연도 가지가지다.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 평소 간이 좋지 않다고 판단,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방치하다가 어깨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나이의 초등학교 여교사 박모씨,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어깨 통증이 심해 '학교를 쫓겨' 고민하고 있다.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의 원인을 보면, 어깨힘줄 염증 및 관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흔하 '오십견'으로 불리는 유착성관절낭염, 관절염과 손

목이 없이도 어깨통증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병이 있어도 어깨통증이 나타난다. 허리관절이 아파서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 이 또한 어깨통증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의 경우 1년 이상 계속된 어깨통증의 원인이 자궁근종으로 밝혀져 어깨통증이 얼마나 많은 외부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지 알려졌다. 그럼 어깨 자체 내부 원인으로 밝혀진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 석회성 건염이 원인인 경우 "어깨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밤에 한 숨도 못 자

지긋지긋한 어깨통증 원인치료 중요

변, 석회성 건염 순이다. 요즘엔 50세 이하 비교적 젊은 연령대 어깨통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통증만 잡는 치료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 치료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로 어깨치료 전문병원을 찾는 이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잊혀진 관찰'에서 '주목받는 관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은 "어깨가 아파 잠을 못자요"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컴퓨터 작업만 해도 아파요" "팔에 힘이 없어 물건을 못 들어요"라고 고통을 호소한다. 그래서 어깨통증은 정확하게 원인을 치료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깨통증을 일으키는 외부 원인으로 목디스크와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심장병, 갑상선 질환, 암, 여성의 경우 자궁근종 등이 있다. 목디스크가 원인인 경우에는 팔을 못 올리고 손가락질만 힘들다고 말한다. 당뇨가 있으면 80% 이상이 어깨통증을 수반한다. 나이가 들면 잘 오는 류마티스 관절염, 다

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쉬고 아려요"라고 말한다. 석회성 건염은 나이가 들면서 조직 내에 석회가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수술을 통해 깨끗이 제거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 움직임이 좋아진다. 어깨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총동 증후군'의 심해 봐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길어 나온 뼈가 힘줄을 계속 손상시키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는 역시 길어 나온 뼈를 깎는 수술을 통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다방형성 불안정성 증상은 X-레이나 MRI를 통해서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의 직접 진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혈행했던 관절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수술을 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어깨힘줄 파열이 심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 어깨통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원인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 <여수백병원 원장>

패적 쇼핑 막는 마트 조리코너 환기 신경 써야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물건을 사는 것 말고도 아이쇼핑을 하며 이것저것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싶다. 하지만 요즘 매장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시식코너 때문에 쉬기에는 불편하다. 대형마트의 구조상 이런 조리코너들이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기가 어렵다. 오히려 시간이 될수록 마트 내의 공기에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이게 된다. 음식을 튀기고 볶고 찌는 등 다양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공기도 탁해지고 심할 때는 조리대 주변을 지나면 눈도 따갑다. 쇼핑을 빨리 마치고 마트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또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마트 내 조리코너의 위치 선정과 환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림1동

기고

박득서



물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간단치 않다. 상수원에서 끌어올려진 물이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에 싹뚫처럼 묻혀있는 관로를 거쳐야 한다. 상수도관로는 마치 혈관과 같아서 높은 혈압(수압)이 항상 문제가 된다. 혈관이 지나친 압력을 받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상수도에서는 수압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지나친 수압이 노후 상수도관에 작용하면 균열이나 파열을 일으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누수된 곳이 많아지면 전체적

상수도 관로의 안정성을 해치는 높은 수압을 떨어뜨리는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사업도 별이다. 감압밸브 설치 등 수압관리는 광주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수돗물 공급지역의 표고차가 극심한 탓이다. 환경부가 적정수압으로 1.5~3.2kg/cm를 제시하고 있지만, 광산구 전역과 서구, 남구 일부지역의 수압은 6~7kg/cm로 정적 수압의 최대치를 두배 이상 웃돈다. 이는 수압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누수량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통한다. 광주시 상수도 시설사업소가 광산구

시민협력 절실한 수돗물 누수 예방

으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수압까지 낮아져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물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누수가 잦을 경우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는 물론 소중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수질까지 크게 떨어지고 누수에 의한 지반침하 등 연쇄 부작용도 발생한다. 수돗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누수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를 막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수율(有收率) 제고' 사업이 대표적이다. 쉽게 풀자면 유수율은 생산된 수돗물량 대비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돗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되는 물이 적다는 의미다.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누수복구, 불필요한 관로 폐쇄 작업이 있다. 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또

신촌동 일원에 '블록시스템'을 시범구축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압밸브 설치를 비롯해 관로를 효율적인 관리·유지가 가능한 바둑판 모양(블록)으로 재장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돗물 공급량과 소비량, 누수량 등의 측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 수돗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내내개 본사업으로 확대할 방안을 갖고 있다. 상수도 시설 관리사업소가 물 자원 낭비를 막기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도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물자원 관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물관리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물을 아껴쓰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가정에서 수도요금에 지날달라 달리 크게 올랐을 경우 누수를 의심하는 관심도 필요하다. 공공자원은 물론 자신의 자산이 누수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장>

농기계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한달이나 걸려서야

농촌의 농기계와 가격과 중요성에 비해 보증수리 기간이 너무나 짧다. 트랙터의 경우 무상보증수리기간이 너무나 짧으니 농민들은 수리비 부담이 크고 부품관매입자들만 돈 벌게 하는 것 같다. 트랙터는 무상 수리기간이 겨우 1년뿐이다. 그것도 연중 골고루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바쁜 농번기에 반쪽 쓰는 건데 무상수리기간은 겨우 1년이니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트랙터로 밭을 갈다

가 들쭉리에 밭갈이용 칼날이 하나 부러졌는데 수리점에 가서 그 교체용 부품을 찾아내는데 1달이나 걸렸다. 그뿐만 아니라 농기계 수리점에서는 부품 구하는데 예를 먹었다며 오히려 수리비도 비싸게 달라는 게 아닌가. 자동차는 10년이 넘어도 부품 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 너무 소홀하니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주정환·고흥군 도암읍 봉암리

시설

코앞에 다가 온 F1대회 걱정이다

포틀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10월 22일~24일)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주장 완공 시일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여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1 한국대회 운영법인인 KAVO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대에 짓고 있는 경주장 완공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시공사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장 완공은 당초 지난 7월8일에서 9월 말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 이마저 어렵다는 것이다.

대회 직전에야 끝날 것으로 보여 완벽한 대회 진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안전성 문제다. 서킷 개장행사가 3차례나 연기되는 바람에 국제자동차연맹 공인 국제대회인 AFOS마저 무산됐다. 경주장 시설과 운영능력을 사전 점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대회를 맞게 된 것이다. 여기에 대회와 열릴 서킷 주변에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점도 걱정거리다.

KAVO 측은 "경주장 완공 연기는 대회 개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주장 주변 부대시설 정비 등을 위한 것"이라며 "F1 대회와 내달 초로 예정된 국제자동차연맹의 서킷 및 안전시설 검수에 차질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회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핵심시설인 서킷(경주용 트랙) 공률이 92%에 그치고 있고, 12만명이 관람하는 일반 스탠드 건설은

다. 대회 직전에야 끝날 것으로 보여 완벽한 대회 진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안전성 문제다. 서킷 개장행사가 3차례나 연기되는 바람에 국제자동차연맹 공인 국제대회인 AFOS마저 무산됐다. 경주장 시설과 운영능력을 사전 점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대회를 맞게 된 것이다. 여기에 대회와 열릴 서킷 주변에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점도 걱정거리다.

뇌물...도박...전남 교육계 왜 이러나

도대체 전남 교육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육공무원들이 일과 시간에, 그것도 사무실에서 수십만~수백만 원대 화투판을 삼습적으로 벌인 미끼지 않은 일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얼마 전에는 교육감 당선자에게 일부 도교육청 간부와 교장이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전국적인 망신을 사더니 이번에는 일선 교육청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베푼 상습도박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이런 얼빠진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긴 지역민들이 안쓰러울 뿐이다.

이다. 교육과장, 총무담당 등 간부 공무원까지 고정범(?)였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장만채 도 교육감은 이번 일에 대해 사과와 함께 엄중한 문책을 약속했지만 이로써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두 달간이나 사무실에서 공공연하게 도박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소음에 시달려 내부 제보를 할 정도인데도 책임자인 교육감이나 삼습기관인 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르고 있었는지, 도박 가담자가 이들 4명뿐인지 등 전모를 살살이 밝혀내야 한다. 그런 후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24일 경찰에 도박 현행범으로 붙잡힌 나주시 교육청 직원 4명은 최근 두 달간 29차례에 걸쳐 관돈 6000만 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였다고 한다. 이들의 형태는 삼습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거의 매일 당직실, 교육교과실, 상담실 등 빈 사무실에서 오후 일과시간 내내 고스름을 쳤다고 한다. 노름을 하기 위해 교육청에 출근한 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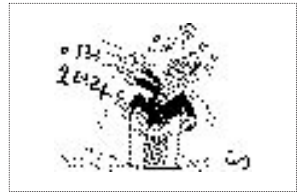
에서 "도민들이 날 교육수장으로 뽑아 준 것은 부패와 비리, 무능을 용서하고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부패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전남 교육계 정말 이대로 안 된다.

無等鼓

"술과 권력은 비슷하다. 한번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만해진다. 깨고 난 다음에야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권부의 핵심에서 일했던 모 정치인의 뜻은 고백이다. 이것 말고도 술과 권력은 공통점이 많다. 마실수록(가질수록) 더 원하고, 취가 오를수록 큰 소리가 난다. 금단 현상도 극심하고 과할수록 다치는 수가 있다.

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미로찾기 실험을 해 보니,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술이 깎고 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한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이유다. 권력중독도 위험하다. 멀리 갈 것도

술과 권력



없이 한참 진흙종인 인사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다. 가히 한 인간의 권력 쫓기기를 보는 것 같다. 투기용 위장장인, 부인 허위귀업시켜 금품 받기에 고급 승용차 얻어타기, 특수활동비 유용, 노후 대비용 쪽방 투기, 선거자금 특혜대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더욱 감잡한 것은 권력이나 술에 취한 사람일수록 "난 아무 힘도 없어" 라든가 "술 안 취했어"라고 주장하다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음주사고를 빚는다는 점이다. 술과 권력이 인간의 인지를 떨어뜨리고,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술의 경우를 보자. 미국 브라운대학 워런 엘버트 의대 스나이더 박사는 최근 학술지 '임상정신약리학'을 통해 사

출 등 하나를 가진 뒤 또 다른 것을 쥐기 위해 동분서주한 흔적이 역력하다. 무작정 "아니다"고 발발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죄송하다" "잘못했다" "봐 달라"를 연발한다. 일기 반한점을 탐들이 음주 후 스스로 술이 깎고 나면 속도는 실제 인지·운동 능력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신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체팀 227-9600 <F A X 227-9500> 다 시 인 2200-536 기획사업국 2200-55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